

# 아버지의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창의적 인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김형재<sup>1</sup>, 구성수<sup>1\*</sup>, 이경철<sup>2</sup>  
<sup>1</sup>구미대학교 유아교육과, <sup>2</sup>서정대학교 유아교육과

## The mediating effect of their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e home environment of fathers and creative personality of young children

Hyoung Jai Kim<sup>1</sup>, Sung Soo Koo<sup>1\*</sup>, Kyung Cheol Lee<sup>2</sup>

<sup>1</sup>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of Gumi University

<sup>2</sup>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of Seojeong College

**요약**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창의적 인성의 관계에서 그들의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부산에 위치한 6곳의 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유아들로, 4세 85명(남아 45명, 여아 40명), 5세 140명(남아 69명, 여아 71명), 전체 225명이었다. 연구결과 첫째, 아버지의 창의적 가정환경은 유아의 창의적 인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유아의 정서지능은 창의적 인성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둘째, 아버지의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창의적 인성간의 관계에서 그들의 정서지능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으며, 간접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유아의 창의적 인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유아기 아버지의 창의적 가정환경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며, 이때 유아의 정서지능은 아버지의 창의적 가정환경의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reative home environment and creative personality of young childre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25 young children from daycare center in Busa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 first, creative home environment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to emotional or creative personality of young children. And emotional intelligence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to creative personality of young children. Second, emotional intelligence worked as a part mediation variable between creative home environment and creative personality of young children. According to,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reative home environment during early childhood predict their creative personality. Their emotional intelligence, especially is the impact factor that can mitigate effects of the creative home environment.

**Key Words** : Creative Home Environment, Creative Personality, Emotional Intelligence, Mediating Effect

### 1. 서론

최근 유아교육학계에서는 창의성을 개인의 성격, 동기, 정서와 같은 정의적 요인을 중시하는 창의적 인성을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유아기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내적인 동기가 크며 호기심이 많은 등 창의적 인성 특성을 발달시키는 최적의 시기[1]라는 점에서 여러 연구자들은 창의성을 연구하데

\*Corresponding Author :Sung-Soo Koo(Gumi Univ.)

Tel: +82-10-9402-7513 email: koosungsoo@gumi.ac.kr

Received March 9, 2014

Revised (1st January 30, 2015, 2nd February 13, 2015, 3rd February 26, 2015)

Accepted March 12, 2015

Published March 31, 2015

있어서 중요한 시기가 유아기임을 동의하고 있다[2]. 특히 유아기 창의성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3], 유아의 창의적 사고에 국한하여 측정할 것이 아니라 창의적 인성이나 동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창의적 인성이란 창의성의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내적인 동기나 태도, 성격, 가치관 등을 의미한다[4,5]. 창의적 인성은 자기 확신, 독립심, 모험심과 집착, 호기심, 상상[6], 관심 있는 일에 몰두, 개성, 특이한 선호, 고정적인 틀에서 벗어나기, 집중력과 과제 집착력, 개방성과 모호함에 대한 인내, 흥미 다양성, 탈 규범, 유머, 위험 감수[7] 등의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의 창의적 인성은 유아 개인의 성향뿐만 아니라 부모 요인 등 외적 환경 요인 간에 서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달한다[8-10]. 초기 연구들은 가정환경과 창의성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국내에서도 2000년대부터 창의성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창의적 환경과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11].

창의적 가정환경이란 유아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정의 환경적 요소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보상하는 환경 요소를 의미한다[12,13]. 즉, 창의적 가정환경은 유아를 존중하고, 풍부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독립심을 자극하고, 발달적으로 적합한 환경을 말한다[14].

유아기 가정환경의 심리적 특성은 창의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15-17]. 구체적으로, 창의성이 높은 자녀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독립적으로 행동하기를 격려하며, 어머니들이 자녀의 일에 과도하게 참견하는 것은 그들의 창의성을 제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2]. [16]은 창의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란 유아들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유창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고 하였다. 이처럼 창의적 가정환경은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의적 가정환경 하위요인으로 [17]은 유아 존중하기, 독립심 자극하기와 풍부한 학습 환경을 제시하였고, [18]은 유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존중,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몰입, 지속성 있는 태도 전달, 자유를 허용함을 제시하였다. [19, 20, 21]은 창의적 환경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으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자녀 스스로 의사결정 하도록 격려하기, 자녀와 따뜻하고 우호적인 시간 보내기, 호기심과 질문 격

려하기, 자녀를 인정하기를 가정환경 하위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그 외 [20, 22, 23, 24]는 부모의 훈육방식, 부모의 거부, 가족의 압력 등이 자녀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19]는 창의적 가정환경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창의적 가정환경 하위요인을 아동 존중, 풍부한 학습 환경, 독립심 자극하기, 가족의 압력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존중’은 자녀의 의견을 듣고 가족 내에서 규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녀에게 발언권을 주고, 가족의 결정과 규칙을 자녀에게 설명해주는 것이다[25]. 창의적인 자녀와 부모사이는 적대적이거나 소홀한 관계가 아닌 자유, 독립, 존중의 관계로 특징지어진다[26]. 즉, 창의적인 유아의 부모는 자녀를 개별적인 존재로서 존중하고 자녀의 능력과 독특함을 믿어주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는 위험을 감수하며 독특한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발달시키게 된다.

‘풍부한 학습 환경’은 놀이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유아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부모가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는 역할모형을 보여줌으로써 풍부한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28,29]. 즉, 창의적인 가정에서는 흥미롭고 적극적이며 유능한 성인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자녀의 창의성을 자극시키는 경향이 있다[27].

셋째, ‘독립심 자극’은 유아가 탐구하며 실험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데 자율성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며 [25,30],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생각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게 함으로써[31], 독립심을 자극한다. 창의적인 유아의 가족은 자녀가 실수를 극복하고 고쳐나가는 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자유와 융통성을 통해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그들 자녀의 실수를 받아들이며 독립심을 갖도록 격려하고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아이디어들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허락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인의 이와 같은 경향성이 유아의 창의성 발달을 촉진시킨다[19].

넷째, ‘가족의 압력’은 “온실(hot housing)가족”에서 나온 개념으로, 그는 부모가 자녀에게 조기에 발달적으로 적합하지 못한 학문적 기술을 지도하는 것으로 압력을 줄 때 온실을 만든다[32]. 온실 가족의 부모들은 높은 수준의 지시, 통제, 비판하는 상호작용으로 자녀들에게 불안, 완벽함, 압력을 가함으로써, 유아의 삶을 지나치게 간

섭하고, 발달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기대를 강요하며, 이는 유아들로 하여금 불안한 수행, 낮은 자기개념,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한다[33].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창의적 가정환경은 유아들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자유를 주며,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생각의 위험을 감수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유아들로 하여금 독립심과 창의성을 자극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18,23,25,31]. 가정환경 변인과 창의적 인성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에서도 유아기 창의적 인성 발달에 가정환경이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16,34-36].

유아기 가정환경과 유아의 창의적 인성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들 중 [16]는 어머니가 유아를 존중하고, 독립심을 격려하고, 가족의 압력이 적을수록 과제에 대한 유아의 내적 동기가 높아지며 유아의 창의적 행동성향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36]는 심리적 가정환경과 창의적 인성 간의 상관이 지위환경과 창의적 인성 간의 상관보다 약간 높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정환경변인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37]는 어머니의 내적 통제성은 자녀의 창의적 인성 요인인 독자성, 개방성, 창의적 인성 총점에서 유의한 정적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석하여 자녀의 창의적 인성을 증진시키는데 어머니의 내적 통제성이 중요한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13]에서는 창의적 가정환경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창의적 인성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그들은 부모의 창의적 인성보다 창의적 가정환경이 더 큰 설명력을 보인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졌듯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 발달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모의 창의적 가정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창의적 가정환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아빠 효과’를 비롯하여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아버지의 영향력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창의적 가정환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유아기 부모의 역할이 다른 점을 감안할 때, 아버지의 창의적 가정환경의 영향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다를 수 있다.

한편, 정서지능은 정서적 경험과 관련된 사회적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으로, 유아의 전인발달에 매우 중요하다[37]. 이러한 정서지능은 창의성과 더불어 유아기가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는 것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38]. 정서지능은 자기 자신의 정서 상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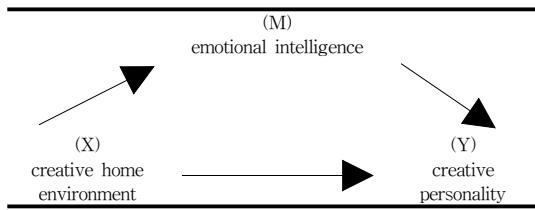
정확히 인식할 줄 아는 능력으로, 자신의 정서를 타인에게 적절히 전달하며, 충동을 자제하고, 분노를 식일 줄 알며, 사물을 가급적 낙관적으로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이다 [38]. [39]은 정서지능을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고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 사고를 촉진하는 감정에 접근하거나 감정을 생성하는 능력, 정서와 정서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정서적 그리고 지적 성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40]은 정서지능은 사고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서와 사고를 연결시키는 능력으로 보았다.

정서지능의 구성 요소를 [41]은 정서의 인식과 표현, 정서 조절, 정서 활용으로 구분하였고, [42]은 정서의 지각·평가 및 표현, 정서의 사고촉진, 정서에 대한 이해와 분석, 정서적·지적 성숙을 증진시키는 정서의 반성적 조절로 보았으며, [38]은 자신의 감정 인식하기, 타인의 감정 인식하기, 자신에게 동기 부여하기, 자신의 감정 다루기, 타인의 감정 다루기로 구분하였다.

정서지능과 창의성 및 창의적 인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서지능과 창의성 간에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연구[43-45]들이 있는 반면, 두 변인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들[46-48]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유아의 창의적 인성 관련 선행연구들은 유아기의 창의적 가정환경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창의적 가정환경이 창의적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서 정서지능이 완전매개를 하는지, 부분매개를 하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기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정서지능은 유아의 창의적 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개인적 측면으로 최근 창의적 인성과 함께 유아기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정서지능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아버지의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창의적 인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유아기에 있어 중요한 창의적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아버지의 창의적 환경을 포함하여 유아기 정서지능에 대한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으며, 유아를 위한 창의적 인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 정서지능을 활용하는 등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Fig. 1] Study Model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창의적 가정환경, 유아의 정서지능 및 창의적 인성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아버지의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창의적 인성간의 관계에서 그들의 정서지능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의 대상은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7곳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4, 5세 유아들과 그들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에 대한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percentage)

Father	Age	29 or less	2(0.9)
		30-34	33(14.5)
		35-39	90(39.5)
		40-44	92(40.4)
		45 or more	11(4.8)
	education level	less high school graduate	67(29.6)
		collage graduate	62(27.4)
		muniversity graduate or more	97(43)
	Job	service industrial employees	7(3.1)
		office job or admin-istrative position	57(25.2)
engineering		46(20.4)	
specialized job		14(6.2)	
public official		15(6.6)	
private business		63(27.9)	
other		24(10.6)	
young children	Age	4	75(32.9)
		5	153(67.1)
	Gender	male	102(44.7)
		female	126(55.3)

Table 1과 같이, 아버지의 인구학적 변인을 살펴본 결과 연령은 40-44세가 92명으로 가장 많았고, 35-40세가 90명, 30-34세가 33명, 45세 이상이 11명, 29세 이하가 2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9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미만이 67명, 전문대졸이 62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직업은 자영업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 또는 관리직이 57명, 기술직이 46명, 공무원이 15명, 전문직이 14명, 서비스직이 7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기타 24명으로 나타났다. 4세 유아가 75명(남아 45명, 여아 49명), 5세 유아가 153명(남아 57명, 여아 71명)으로, 총 225명이었다.

### 2.2 연구도구

#### 2.2.1 창의적 가정환경

유아의 창의적 가정환경은 선행연구[17]의 창의적 가족 환경의 ‘세 가지 모델’과 선행연구[18]의 “온실(hot housing)가족”의 개념에 근거하여 선행연구[19]이 개발한 창의적 가정환경 도구를 사용하였다. [24]에서의 신뢰도 Cronbach a 계수는 아동 존중은 .86, 풍부한 학습 환경은 .82, 독립심 자극은 .80, 가족의 압력은 .75, 전체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계수는 아동존중 .81, 풍부한 학습환경 .72, 독립심 자극하기 .73, 가족의 압력 .70, 전체 .88이었다.

#### 2.2.2 정서지능

유아의 정서지능은 선행연구[6]가 제안한 정서지능의 개념모형을 기초로 하여 선행연구[7]가 제작한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신뢰도 Cronbach’s a계수는 자기정서의 이용 .90,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84,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79,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 .85, 대인관계기술-교사와의 관계 .85, 또래와의 관계 .86, 전체 정서지능 .94로 신뢰할만 하였다.

#### 2.2.3 창의적 인성

유아의 창의적 인성은 PRIDE를 참고하여 선행연구[8]이 제작한 ‘유아용 창의적 행동특성 검사(The rating scale for creative characteristics of preschoolers: RSCCP)’를 근거로 선행연구[9]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Cronbach’s a계수는 독특성-호기심 .91, 개방성-유머 .88, 민감성-흥미 .71, 상상력-놀이성 .76, 독립성-몰두 .70, 전체 창의적 인성 .97로 신뢰할만 하였다.

### 2.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2년 9~11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중 7곳을 군집표집한 후 4, 5세 유아 245명을 대상으로 창의적 가정환경은 부모에게 질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였고, 정서지능 및 창의적 인성은 담임교사에게 검사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무응답이 많거나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총 225부(92%)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검사시간은 창의적 가정환경 질문지는 20여분, 정서지능 및 창의적 인성 검사지는 30여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각 검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창의적 가정환경, 정서지능 및 창의적 인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창의적 가정환경과 창의적 인성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49]가 제안한 매개모형 검증절차에 따라 SPSS 18.0을 사용하여 표준 중다 회귀분석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넷째, 매개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창의적 가정환경, 정서지능 및 창의적 인성간의 관계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정서지능 및 창의적 인성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e home environment, emotional intelligence, and creative personality (n=225)

	creative home environment	emotional intelligence	creative personality	M	SD
creative home environment	1	.24***	.39***	102.52	11.68
emotional intelligence		1	.34***	188.00	22.71
creative personality			1	157.00	29.56

\*\*\*p<.001

Table 2에서와 같이,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정서지능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24, p<.001$ ),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창의적 인성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39, p<.001$ ). 또한 유아의 정서지능과 창의적 인성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34, p<.001$ ).

### 3.2 창의적 가정환경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유아가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창의적 인성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50]가 제시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이 제안한 인과관계 분석모델은 매개변수가 실제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50]는 첫째, 독립변인(X)이 종속변인(Y)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둘째, 독립변인(X)이 매개변인(M)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충족되면 셋째, Y에 대한 회귀식에 X와 M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M이 Y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X의 Y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되면 매개모델이 성립한다고 하였다. 다만 첫째 단계를 반드시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 또한 선행연구[50]는 매개변인의 효과를 완전매개와 부분매개로 구분하였다. ‘완전매개효과’란 X가 Y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고 오로지 M을 통해서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부분매개효과’란 X가 Y에 직접 영향을 주는 관계와 M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관계가 동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완전매개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의 세 번째 단계 분석에서 M의 효과가 통제되었을 때 X가 Y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야 하며, 완전매개 관계가 성립하면  $\beta$ 값 비교는 불필요해진다.

Table 3은 아버지의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창의적 인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보기 위해 회귀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3]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n=225)

verification stage of the mediating effects	B	SE B	$\beta$	t	R <sup>2</sup>	F
1 stage (X→M)						
M : emotional intelligence						
X : creative home environment	.47	.13	.24	3.72***	.06	1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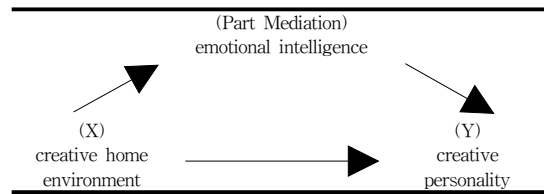
2 stage (X→Y)						
Y : creative personality						
X : creative home environment	.99	.16	.39	6.38	.15	40.65
				***		***
3 stage (X, M→Y)						
Y : creative personality				4.32		
M : emotional intelligence	.34	.08	.26	***		
X : creative home environment	.83	.16	.33	5.39	.22	31.26
				***		***

\*\*\* $p<.001$

Table 3에서와 같이,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아버지의 창의적 가정환경이 가정된 매개변인 유아의 정서지능을 유의하게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아버지의 창의적 가정환경이 유아의 정서지능을 6%정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회귀모형은  $F=13.80(p<.001)$ 으로 나타나 적합한 회귀모형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1단계의 기본 가정을 만족한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아버지의 창의적 가정환경이 종속변인인 유아의 창의적 인성을 15%정도 설명하였으며,  $F=40.65(p<.001)$ 로 나타나 위의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2단계의 기본 가정을 만족한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아버지의 창의적 가정환경과 매개변인인 유아의 정서지능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인인 유아의 창의적 인성의 예언정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정서지능이 그들의 창의적 인성을 설명하는 영향력은 22%로, 2단계에서 창의적 가정환경이 창의적 인성을 15% 설명한 것에 비해 설명력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F=31.26, p<.001$ ). 이 단계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창의적 가정환경의 표준화계수( $\beta$ )는 .33로 2단계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창의적 가정환경의 표준화계수( $\beta$ ) .39보다 그 값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독립변인의 효과가 유의하게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남은 독립변인의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효과는 커졌기 때문에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추가로 실시한 Sobel 검증 결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는 독립변인인 창의적 가정환경은  $2.11(p<.05)$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기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창의적 인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은 간접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한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Fig. 2와 같다.



[Fig. 2] Study Result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정서지능 및 창의적 인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창의적 가정환경과 창의적 인성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정서지능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창의적 가정환경은 정서지능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본 결과는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창의적 인성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어머니가 유아를 존중하고, 독립심을 격려하고, 가족의 압력이 적을수록 유아의 창의적 행동성향이 높아진다는 [1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유아의 창의적 인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을 존중하고 풍부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독립심을 자극하는 반면 가족의 압력은 최소화 하는 등의 창의적인 가정환경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창의적 인성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창의적 가정환경은 창의적 인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지능은 창의적 인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본 결과는 정서지능과 창의성 간에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43-45]와는 차이를 보이며, 두 변인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들[46-48]과는 유사하다. 즉, 창의적인 가정환경일수록 창의성과 같은 맥락으로 창의적 인성 역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유아의 창의적 인성 발달을 위해 가정과 유아교육기관 간의 연계교육이나 창의적인 가정환경 마련을 위한 부모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유아기 창의적 가정환경은 유아의 정서지능과 창의적 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임이 입증되었다.

둘째, 창의적 가정환경과 창의적 인성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으며, 간접효과를 보였

다. 따라서 유아기 창의적 가정환경은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의 정서지능이 창의적 가정환경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교육현장에서는 유아의 창의적 인성뿐만 아니라 정서지능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낮은 수준의 창의적 가정환경 속에 있는 유아들의 경우,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면 창의적인 인성을 형성시키기 용이할 것이다.

따라서 유아의 창의적 인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유아기 창의적 가정환경이 중요한 변인이며, 특히 유아의 정서지능은 창의적 가정환경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창의적 인성에 부분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가정과의 연계가 중요한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유아의 창의적 인성을 지지하는 창의적 가정환경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 수업을 통해 유아들에게 가정에서 창의적 가정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열악한 가정환경일 경우라 하더라도 유아의 정서지능을 개발시켜 준다면 이러한 가정환경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즉,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의 창의적 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이나 프로그램 개발 시 정서지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의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제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시 4, 5세 유아만을 대상으로 창의적 가정환경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횡단연구이다. 따라서 이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모집단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 종단연구로 창의적 가정환경과 개인의 심리내적 변인인 정서지능과 창의적 인성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본 연구의 정서지능과 창의적 인성검사는 부모 보고식 검사로 부모의 주관성을 배제시키기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유아를 대상으로 객관성을 유지하고 직접 실험 가능하며 표준화된 검사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단계별 모형에서의 설명력은 6~22% 정도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특히, 창의적 가정환경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은 6%로, 정서지능이라는 종속

변수가 창의적 가정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주요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고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유아기 정서지능을 설명하는 다른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변인들의 관계를 다루는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는 창의적 가정환경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에 대해 전체 점수만을 양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각 변인의 하위요인이 어떠한지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거나 이러한 경로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1] J. W. Choi & Y. S. Lee.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Creativity.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0(4), 139-172. 2003.
- [2] D. P. MacKinnon, J. L. Krull & C. M. Lockwood. Equivalence of the mediation, confounding and suppression effects. *Prevention Science*, Vol 1, pp. 173-181. 2000.  
DOI: <http://dx.doi.org/10.1023/A:1026595011371>
- [3] J. H. Mun & M. J. D. Ha. Another Education, Creativity, Seoul: Hakjisa. 1999.  
DOI: <http://dx.doi.org/10.11628/ksppe.2013.16.5.327>
- [4] J. H. Ya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ociodrama program for school life adjustment and creative personality and it's effect. Hongik University In Press. 2005.  
DOI: <http://dx.doi.org/10.16881/jss.2014.07.25.3.459>
- [5] G. J. Feist.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on artistic and scientific creativity. In R. J. Sternberg(Ed.), *Handbook of creativity*. 273-296.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DOI: <http://dx.doi.org/10.1017/cbo9780511807916.016>
- [6] J. H. Hah. The development of creative personality scal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4(2), 187-210. 2000.  
DOI: <http://dx.doi.org/10.15753/aje.2011.12.4.010>
- [7] I. S. Song & H. S. Kim. An Exploratory Study of the Establishment of Concept on Creativ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3(3), 93-117. 1999.
- [8] M. Csikszentmihalyi. The creative personality. *Psychology Today*, 29(4), 36-40. 1996.  
DOI: <http://dx.doi.org/10.1037/h0031106>
- [9] M. Csikszentmihalyi. Implications of a system

- perspectives for the study of creativity. In R. J. Sternberg(Ed.), *Handbook of Creativity*, 313-33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10] H. Gardner. *Multiple intelligences: The theory in practice*. New York: Basic Books. 1993.
- [11] S. Y. Kim. A structur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creativity and mother's parenting variables. Yonsei University in Press. 2003.
- [12] Y. S. Jang & J. H. Cho (2010). The effects of parents'creative personality and creative home environment on young children's creative personality. *Education Culture Study*, 16(2), 309-336.
- [13] Sternberg, R. J., & Lubart, T. I. (1991). An investment theory of creativity and it's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49(3), 607-627.
- [14] K. H. Lew & S. M. Kang (2013).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Variables on Preschooler's Creative Environment, Self-Esteem and Peer Competence.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
- [15] M. H. Oh. & B. G. Choi. Causal Effects of Creative Home Environment and Emotional and Cognitive Variables on Children's Creativity. *Korean J. of Child Studies*. 28(2). 55-70. 2007.
- [16] W. J. Roeper. Feedback in 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Programmed Learning and Educational Technology*, 14, 43-49. 1977.
- [17] C. Wright, & S. Wright. A conceptual framework for examining the family's influence on creativity. *Family Perspective*, 20, 127-136. 1986.
- [18] M. Michel. & S. Dudek.. Mother-child relationships and creativit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4(3), 281-286. 1991.  
DOI: <http://dx.doi.org/10.1080/10400419109534400>
- [19] M. H. Oh & B. G. Choi. Development of a creative home environment scale for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44. No. 1. pp. 1-10. 2006.
- [20] Issacs (1987). How to help your child's talent grow. *The Creative Child and Adult Quarterly*, 6(4), 210-224.
- [21] T. M. Amabile. *Creativity in context*. Boulder, CO: Westiew. 1996.
- [22] D. W. Tegano, D. J. Moran, & J. K. Sawyers. *Creativity in early childhood classrooms*, Washington, D.C: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1991.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51.6.1173>
- [23] Kemple, K. M. & Nissenberg, S. A.(2000). Nurturing creativ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families are part of it.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8(1), 67-71.  
DOI: <http://dx.doi.org/10.1023/A:1009555805909>
- [24] M. H. Oh & B. G. Choi. Development of a creative home environment scale for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44. No. 1. pp. 1-10. 2006.
- [25] D. W. MacKinnon. The nature and nurture of creative potential. *American Psychologist*, 17, 484-495. 1961.  
DOI: <http://dx.doi.org/10.1037/h0046541>
- [26] K. Dewing & H. Taft. Some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s of creative twelve-year-olds. *Journal of Personality*, 41, 71 - 85. 1973.  
DOI: <http://dx.doi.org/10.1111/j.1467-6494.1973.tb00661.x>
- [27] K. W. Jeon. *Why is the angular stone tablets right?* Sedol: ChangJiSa. 1998.
- [28] H. Walberg, S. Rasher & J. Parkerson. Childhood and eminenc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13, 225-231. 1979.  
DOI: <http://dx.doi.org/10.1002/j.2162-6057.1979.tb00211.x>
- [29] C. Wright. Nurturing creative potential: An interactive model for home and school. *Creative Child and Adult Quarterly*, 12(1), 31-38. 1987.
- [30] D. M. Harrington, J. H. Block & J. Block. Predicting creativity in preadolescence from divergent thinking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Personality*, 43, 434-454. 1987.  
DOI: <http://dx.doi.org/10.1111/j.1467-6494.1975.tb00715.x>
- [31] J. Freeman. The early years: Preparation for creative thinking. *Gifted Education International*, 3(2), 100-104. 1985.  
DOI: <http://dx.doi.org/10.1177/026142948500300205>
- [32] T. W. Hills. Children in the fast lane: Implications for early childhood policy and practic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ly*, Vol 2. No. 3, pp. 265-273. 1987.  
DOI: [http://dx.doi.org/10.1016/0885-2006\(87\)90035-4](http://dx.doi.org/10.1016/0885-2006(87)90035-4)
- [33] M. C. Hyson, K. Hirsh-Pasek. L. Rescorla. J. Cone. & L. Martell-Boinske. Ingredients of parental "ressure"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47 - 65. 1991.  
DOI: [http://dx.doi.org/10.1016/0193-3973\(91\)90005-O](http://dx.doi.org/10.1016/0193-3973(91)90005-O)
- [34] M. S. Kim, D. R. Chung, & J. H. Lee. Creative Thinking, Personality, Environment, and Performance in Science: Gender Differences in Science-Gifted and General Students. *Korean J. of Child Studies*. 24(3), 1-13. 2003.
- [35] S. H. Park. A study of the relations between home environment, cognitive style and creativity.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in Press. 1991.
- [36] E. H. Sung. Relationships between the mothers'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creative home



environment and daughters' and sons' creative personality.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7(3), 79-93. 2004.

[37] C. Saarni. Emotional competence : How emotions and relationship become integrated. In R. A. Thompson (Ed.), *Socioemotional development* (pp.115-182).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0.

[38] D. Goleman.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1995.

[39] J. D. Mayer & P. Salovey.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mplications for educators* (pp. 3-31). New York: Basic Books. 1997.

[40] Y. J. Lee, J. S. Lee. & E. S. Shin.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Program to Increase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9(2), 157-186. 1999.

[41] P. Salovey & J. D. Mayer.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Vol. 9. No. 3. pp. 185-211. 1990  
DOI: <http://dx.doi.org/10.2190/DUGG-P24E-52WK-6CDG>

[42] J. D. Mayer & P. Salovey.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identification of emotion, Intelligence. (pp. 245-267). 1996.

[43] H. S. You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reativity. Chung Nam University in Press. 1997.

[44] G. H. Lee, J. O. Park. & E. J. Kim. A study on emotional intelligence in science gifted.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7(1), 1-29. 1997.

[45] K. M. Lee. Intelligence, emotional intelligence and creativity of young children :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and explanatory variables. Sung Kyun Kwan University in Press. 2002.

[46] R. S. Nickerson. Enhancing creativity. In R. J. Sternberg (Ed.), *Handbook of creativity* (pp. 392-43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47] H. F. O'Neil. *Motivation: Theory and Research*. Psychology Press. 1994.

[48] E.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 and the child's creative persona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Sung Shin Women's University in Press. 2011.

[49] R. M. Baron & D. A. Kenny.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1. No. 6. pp. 1173-1182. 1986.

**김 형 재(Hyong-Jai Kim)**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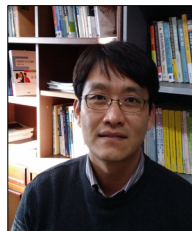
- 2011년 8월 :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보육전공 (이학박사)
- 2013년 8월 :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전공(교육학박사)
- 2013년 9월 ~ 현재 : 한국연구재단 융합연구 씨앗형 연구수행 공동연구원
- 2014년 3월 ~ 현재 : 구미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창의·인성교육, 유아과학교육, 교수매체 개발

**구 성 수(Sung-Soo Koo)**

[정회원]



- 2005년 9월 ~ 2010년 6월 : 에덴 유치원 원장
- 2012년 2월 ~ 현재 : 문장 유치원 어린이집 설립자
- 2013년 9월 ~ 현재 : 구미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2014년 ~ 현재 : 한국산학기술학회 홍보이사

<관심분야>

교육심리, 창의성교육, 유아과학교육

**이 경 철(Kyung-Cheol Lee)**

[종신회원]



- 1985년 3월 ~ 현재 : 세울산 유치원 설립자
- 2006년 2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전공 (교육학박사)
- 2003년 9월 ~ 2012년 2월 : 명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서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학과장

<관심분야>

프로그램 평가, 교육측정 및 평가, 기관 평가